

청정생산 · 자원순환기술 개발 443억원 지원

산업자원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<2007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> 및 <2007년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>을 확정했다.

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·감축하고,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조공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원부자재 투입의 원천적 절감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2007년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규모는 총 443억원으로, 청정사업에 243억원, 에너지·자원순환사업에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청정사업 기술개발과제에는 총 1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, EU(유럽연합)의 RoHS(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) 및 REACH(신화학물질 관리제도)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유해물질 대체, 환경친화적 부품·소재 개발에 67억원, 제조공정 개선 및 청정생산 신공정 개발에 84억원, 5년 이내에 핵심 청정생산기술로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청정생산 원천기술개발에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또 개발기술의 보급·확산을 위한 이전확산과제에 68억원, 유해물질 시험분석 표준화, REACH 기업지원센터 등 환경규제대응 기술지원 및 기반조성에 24억원,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 Eco혁신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에너지·자원순환사업은 기후변화협약, EuP(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 설계지침) 등 에너지·자원 관련 규제대응 기술개발에 36억원,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, 대·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, 재제조산업 기술개발·보급 등에 125억원 등 모두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2/12>